

자아실현성과 공동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남편과 부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Husband and Wife's Self-Actualization and Joint Decision-Making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김 성 희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Sung Hee Kim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 문 숙 재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Prof. : Sook Jae Moon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1. 자아실현성과 의사결정
2. 자아실현성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도구
2. 조사대상

3. 자료처리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기초자료분석
2. 연구문제의 분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is study was mainly concerned providing a basic of data for the more reasonable home management. The purpos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husbands and wives self-actualization and degree of joint decision-making.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500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to the marital in seoul. The 412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T-test, ANOVA, Scheffe-test.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 1) Over one and half of husbands and wives are try to be self-actualized.
- 2) The tendency of the husbands and wives decision-making was joint decision-making.
- 3) The important influential variables on the husbands and wives self-actualization husbands were age, life-cycle, job employment motivation. And wives were life-cycle, education, income, job, employment motivation.

4) The important influential variables on the joint decision-making were age, number of child, life-cycle.

5) A marital joint decision-making level differs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degree of husbands and wives' self-actualization. The higher level of husbands and wives' self-actualization, the higher degree of marital joint decision-making.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that a marital joint-making necessary in order to carry on happy home management and the reasonable home administration.

I. 서 론

현대사회의 변화는 가족의 형태, 규모, 가족생활주기 등 가족체계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가족성원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다. 또한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와 남녀평등 사상의 만연으로 취업여성의 증가와 함께 가정 소득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가족성원들은 그들의 미래가 어떤 우연이나 숙명, 혹은 기술경제의 발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면서(문숙재 1985: 16) 좀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증대되었다. 또한 가정과 자신을 동일시 하던 주부들은 한 인간으로서 "자기"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었고 자아실현의 필요성을 자각하였다. 그러므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평등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고, 역할태도 또한 근대적인 성향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모든 변화의 양상들은 부부의 권력구조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의사결정은 가정관리의 최소단위이며 각 관리과정 전체에서 행해지는 핵심이 되는 활동으로, 문제해결의 일례로서 행동전에 행동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의사결정은 생활의 만족도 증진에 영향을 미치며(Paolucci, Hall과 Axin 1978) 합리적인 가정경영을 수행하게 한다.

가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의사결정의 수행에 있어서 남편이나 부인의 어느 일방에 의한 결정보다는 부부 공동의 의사결정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의사결정의 변화는 가족내의 권력과 일치되고 나아가서는 당시의 사회통념이나 가치기준과 직결되므로 의사결정의 연구를 통하여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추론할 수 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교육수준,

직업, 연령, 가족생활주기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성역할 태도, 자아실현성, 의사소통, 결혼만족도와 같은 사회심리적 변수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사용한 연구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으며 가족생활주기가 낮은 단계에 속할수록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높았다(임희규 1979; 이형실 1985; 강기연 1989). 한편 사회심리적 변수중 자아실현성을 변수로 사용한 연구결과, 적극적이고 근대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아실현성이 높았다(Price 1973; 강기연 1989). 그리고 자아실현성이 높은 사람은 그들의 역할태도 평가에서도 근대적인 성향을 보였으며(이미숙 1979),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사람일수록 부부의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높았다(이형실 1985). Maslow에 의하면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사람이란 심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아실현성이 높은 사람은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며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부부 공동의 의사결정을 추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의 만족도 증진과 합리적인 가정경영을 위해서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상황변수(연령, 자녀수, 가족생활주기, 교육수준, 소득, 남편의 직업, 부인의 취업유무, 취업동기) 이외에 남편과 부인의 자아실현성이라는 가정하에 남편과 부인의 자아실현성과 공동의사결정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아실현성과 공동의사결정간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I : 상황변수에 따라 남편과 부인의 자아

실현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II : 상황변수에 따라 남편과 부인의 공동 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III : 자아실현성에 따라 남편과 부인의 공동 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 1) 조사대상을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자녀 이상의 부부 가족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 2) 자아실현성의 조사도구로 사용한 「자아실현성 검사」는 김재은·이광자에 의하여 1977년에 개발된 것으로, 본 연구는 시대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 3)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부부만을 조사한 것으로 다른 가족성원들의 참여는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아실현성과 의사결정

1) 자아실현성

자아실현성(Self-Actualization)은 유기체가 하나의 기본적인 경향성과 욕구를 가지고 자신을 실현하고 유지하고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Goldstein(1963 : 197-198)의 유기체 이론(Organismic theory)에서 최초로 사용된 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다.

자아실현이란 심리적 차원에서 보면 자아에 부합되도록 행동하는 성향으로, 일단 자아실현을 하게 되면 인간은 자기유지(self-maintenance)를 위해 계속 노력하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자아실현적 경향은 더욱 성숙되며 자율적으로 된다(Rogers 1951 ; 조 숙 1984 : 9에서 재인용). 한편 인지적 차원에서 보면 개인의 정보를 구별하고 종합할 수 있는 정도이다. 즉, 자신의 인지적 기능을 통하여 스스로 새로운 경험과 변화를 창조하며 증가된 정보량을 충분히 소화하여 다룰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Butler와 Rice 1963 ; Wexler 1974). Alder는 자아실현을 실제로 존재하거나 혹은 상상속의 열등감을 극복함으로써 우월을 추구하는 것으로, Maslow(1970)는 한 개인의 내면적 본성을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과 잠재능력의 완전한 이용이라

정의하였다. 특히 Maslow는 자아실현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유기체 이론을 확장시켰고, 이러한 경향을 욕구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인간의 욕구위계이론(need hierarchy theory)을 제안하였다. 자아실현한 인간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성을 지닌다(Maslow 1970 : 149-180 ; 박아청 1984 : 31-33).

- 1) 현실에 대한 지각이 율동하고 이에 잘 적응한다.
 - 2) 자신이나 타인 및 자연에 대한 포용성이 크다.
 - 3) 자발성이 강하다. 행동, 사고가 매우 자발적이어서 감정을 정직하게 나타낸다. 또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자신의 인생을 더욱 풍부하고 완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성장을 시도한다.
 - 4) 문제중심적이다. 인생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사명과 과업을 수행하며, 스스로 과업을 선택하고 책임과 의무감을 가진다.
 - 5) 개인적 생활을 원한다. 사생활과 고독을 불안해하지 않고 긍정적인 면으로 즐기므로써 초연할 수 있으며 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
 - 6) 문화와 환경으로 부터 독립적이다.
 - 7) 항상 새롭고 신선하게 생활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인지하는 능력이 있다.
 - 8) 신비한 경험을 자주한다. 강렬한 감성적 경험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환희, 경이스러운 감정을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확신하게 된다.
 - 9) 인간미가 풍부하다.
 - 10) 깊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수립한다. 보다 큰 사랑으로 융합하여 거의 완전한 동일시가 가능하며 이 기쁨이 극복되는 절친한 관계를 갖는다.
 - 11) 민주적인 성격을 지닌다.
 - 12) 목적과 수단, 성과 악을 구별한다.
 - 13) 철학적이며 비적대적인 유우모 감각을 가지고 있다.
 - 14) 창의성이 풍부하다. 진실과 현실을 더욱 쉽게 인지할 수 있어서 그들의 창의력은 순수하며 본질적이다.
 - 15) 자신의 특유한 방식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한다.
- 이와같이 자아실현한 사람은 보통 사람에 비해 보다 풍부한 인간적 기능을 다하며 풍요롭게 삶을 영위하게 되고 합리적인 사고력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자아실현이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잠재능력

이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참다운 자아를 발견하고 이를 최대한 성장시켜 성공적인 삶을 영위 하려는 경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의사결정

의사결정은 행동에 앞선 선택과정이거나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행위이며, 시간과 금전, 에너지와 같은 가정관리를 위한 자원을 목적에 맞게 상호작용시키는 지적활동으로서 가정관리의 핵심이 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은 관리과정의 한 부분이기도 하며 관리과정 전체이기도 하다.

Gross, Crandall과 Knoll(1980 : 127)은 의사결정을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유도되는 과정으로 목표에 의해 동기가 발생되고 기준에 의해 검토되어 자원의 사용과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Nickell과 Dorsey(1968)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나 혹은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방법중에서 한가지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Simon(1960)은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취할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Wolfe(1959)는 의사결정을 주어진 상황속에서 일련의 대안적 행동과정을 선택하는 것, Maloch와 Deacan(1966)은 여러 대안들 중의 선택 또는 해결, Nickell, Rice와 Tucker(1976 : 85)는 어떤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가지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합리적인 인간의 행위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사결정은 일상의 가정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수 많은 문제상황 하에서 문제를 규명하고 찾아 내어 가치, 표준에 기초하여 가족성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가정관리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는 역할수행과 (Turner의 2인 1965 ; Davis 1970 ; Duglas와 Wind 1978 ; 이은숙 1977 ; 류영희 1981 ; 이형실 1985 ; 임운정 1988) 권력 구조(Blood와 Wolfe 1960 ; Cromwell과 Cromwell 1978 ; 이한기 1977 ; 임희규 1979 ; 최영애 1982 ; 김윤경 1983)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남편과 부인의 의사결정시에 나타나는 부부의 역할구조를 역할전문화와 역할공동성으로 분류하여, 역할수행 전반에 대한 영향력의 소재를 평등성에 기초하여 해석하

므로서 의사결정시의 역할참여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역할구조와 의사결정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한편 가족의 권력구조와 의사결정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자원이론(Resource theory ; Blood와 Wolfe 1960), 교환이론(Exchange theory ; Heer 1963) 그리고 규범적 자원이론(Normative Resource theory ; Rodman 1970)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Blood와 Wolfe의 자원이론은 개인의 교육정도, 직업, 수입, 사회참여등을 자원으로 보고 권력을 개인이 지닌 자원의 상대적인 양에 비례한다는 가정하에 의사결정 행위로 측정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교환이론은 자원이론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개인의 자원이 부부관계에 더 많이 공헌되면 대안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되고 권력을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Rodman(1970)의 규범적 자원이론은 교환이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의사결정시 가족의 권력은 그가 처한 문화적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가정생활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 능력은 권력, 권위와 관계를 갖는다. 여기에서 권력(Power)은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능력(Potential Ability)으로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결정능력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권위(Authority)는 누구에게나 공인된 능력(Legitimate Power)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성원의 누군가가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자타가 함께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힘을 말한다.

권력관계에 대한 연구는 1936년 광범위한 국제적 협력하에서 독일 학자들을 중심으로 최초로 이루어졌다. 그뒤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는 남녀평등 사상이 일찌기 발달되어 있던 서구를 비롯하여 미국, 호주등지에서 Pilot Study의 성격을 띤 연구로 계속되었고 1960년 Blood와 Wolfe에 의해 본격화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사회학자를 중심으로 하여 1960년대를 전후로 의사결정에 대한 조사연구가 시작 되었지만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문승규(1967), 최재석(1971), 한남재(1971)등의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이는 미국의 모델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미국과의 기초적인 비교연구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5년 이후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가정생활내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김혜선 1975 ; 윤복자 1976 ; 이한기

1977; 서병숙 1978; 유영주 1978; 임희규 1979; 최영애 1982; 김윤경 1983; 김혜숙 1983; 이형실 1985; 김규원 1986; 장병욱 1987; 강기연 1989).

2. 자아실현성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1) 상황변수와 자아실현성

연령과 자아실현성에 관한 연구결과, Rizzo와 Vinacke(1975), Zimmerman(1978), 최숙희(1983) 등은 연령이 높을수록 자아실현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이정숙(1984)은 연령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교육수준과 자아실현성과의 관계를 보면 이미숙(1979), 강기연(1989)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실현성이 높다고 하였으나 이정숙(1984)은 교육수준에 따른 자아실현성은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소득에 따른 자아실현성은 Dale(1968), 이미숙(1977)에 의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자아실현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직업에 따른 자아실현성의 연구에 의하면 Dale(1968)은 직업에 따라 자아실현성 정도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국내의 연구는 대부분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직업을 변수로 사용하기 보다 취업유무를 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이미숙(1979), 이정숙(1984), 강기연(1989)은 부인의 취업유무는 자아실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반면, 40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숙(1984)은 취업한 주부가 비취업 주부에 비해 자아실현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2) 상황변수와 의사결정

연령과 부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Wolgast(1958), Blood(1962)의 연구결과 젊은 부부일수록 공동의 의사결정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lood와 Wolfe(1960)는 부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편의 상대적인 권력은 감소하는 반면 부인의 권력은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연구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는데, 최재석(1971), 한남제(1971), 임희규(1979), 최영애(1982), 김윤경(1983), 강기연(1989)의 연구결과 20대 30대의 젊은 부부일수록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를 보면 Blood와 Wolfe(1960), Centers(19

71)의 연구결과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은 가족생활주기의 후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영애(1982), 김윤경(1983), 이형실(1985) 등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교육수준과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Bonham(1976)은 남편의 교육수준과 의사결정점수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Wilkening과 Morison(1963)도 교육정도와 의사결정은 정적인 관계가 있어 부인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은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한기(1977), 서병숙(1978), 임희규(1979), 최영애(1982), 이형실(1985), 강기연(198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소득과 의사결정과의 관계를 보면 Wilkening와 Morison(1963), Melson(1970)의 연구에서도 소득이 낮은 집단보다 중간 집단의 공동의사결정이 높았으며 고소득층에서는 일방의 의사결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중간 소득집단의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Jeries(1977)는 남편의 소득과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에는 정적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이형실(1985)의 연구와 일치하며, 소득에 따른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한기(1977), 서병숙(1978)의 결과와 불일치한다. 한편 직업과 의사결정과의 관계를 보면 Safilios-Rothschild(1967), Cromwell과 Cromwell(1973)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의 의사결정 행동은 좀 더 평등한 태도를 보인다고 한 반면 김윤경(1983)은 남편의 직업수준은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차이로 간주된다. 부인의 취업유무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Blood와 Wolfe(1960), Heer(1963), 이정연(1982)은 취업 경험이 있거나 취업중인 가정에서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이 높은 반면, Middleton과 Putney(1960)는 비취업 주부가 취업주부보다 의사결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윤경(1983), 이형실(1985), 윤현봉(1986), 강기연(1989)은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3) 자아실현성과 의사결정

자아실현성은 자신의 잠재능력이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을 마음껏 성장시키며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려는 경향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킨 사람은 근대적, 민주적인 가치를 형성하게 되며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가치성향을 지닌 사람은 가정생활의 의사결정에도 부부공동의 의사결정을 행하게 된다.

Price(1973)는 자아실현성과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연구에서 자아실현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처음의 결정사항을 변경하지 않으려 했으며 중간집단은 결정사항을 자주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실현성이 낮은 집단은 전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반면 높은 집단은 근대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부부공동의 의사결정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연구 결과는 강기연(198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자아실현성과 부부의 의사결정은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특히 부인의 일방참여 보다도 부부 공동의 참여에 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한편, 자아실현성이 높은 주부일수록 가정관리능력이 높으며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이고 부부 공동의 의사결정을 행함으로써 가정생활의 만족도도 증가하였다(이미숙 1979; 이정숙 1984; 이형실 1985).

그러므로 자아실현성이 높은 사람은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높으며 생활만족도도 증가하여 합리적인 가정경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볼때 자아실현성과 가정관리능력, 자아실현성과 주부의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와 의사결정 유형과 같이 단편적인 연구만이 이루어졌으며, 상황변수와 자아실현성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황변수와 자아실현성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도구

1) 일반적 문항(상황변수)

응답자 개인의 일반적 특성을 알기 위해 연령, 교육수준, 직업, 취업동기등을, 가구의 특성을 위해 자

녀수, 가족생활주기, 소득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2) 자아실현성

자아실현성의 측정은 김재은·이광자(1977)의 「자아실현성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정신건강 및 Maslow의 자아실현적 인간의 가치 태도 및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Shostrom(1963)이 제작한 Personal Orientation Inventory(POI)를 한국문화실정에 맞도록 표준화하여 작성한 것으로, 전체 1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서로 대조되는 두개의 가치 기준으로 되어 있고 자신의 가치기준과 일치하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자아실현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자아실현성 검사」중에서 자아실현성'에 관한 22 문항만을 채택하였으며 이중 예비조사를 통하여 문항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문항을 제외한 17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67이었다.

3) 의사결정

의사결정 문항은 일상의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의생활·식생활·주생활·경제생활·자녀문제·여가생활·가족관계의 7개 하위영역에 대한 28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5점 Likert형 척도로 사용하였다. 의사결정유형을 비교하기 위해 각 문항에서 남편 또는 부인 혼자에 응답한 경우 1점, 주로 남편 또는 주로부인에 2점, 그리고 부부공동에 3점을 주어 전체를 총합한 후 평균을 비교하였다.

2.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 자녀 이상을 둔 부부 가족 중에서 남편과 부인으로 한정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거쳐 자료의 미비한 점을 일부 수정, 보완한 후 1988년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500명(25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법과 면접법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응답시 부부가 서로 상의하지 않고 설문에 응답하도록 주의를 주어 부부가 독자적이고 성의 있는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주 1) 시간성, 지향성, 자아실현성, 실존성, 감수성, 자발성, 자기긍정성, 자기수용성, 인간관, 포용성의 하위영역 중에서 자아실현성 영역만을 채택하였다.

3. 자료의 처리

수집된 자료중 412부(206쌍)를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빈도, 백분율, T-test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남편의 연령은 20대가 1.9%, 30대가 22.8%, 40대가 47.6%, 50대 이상이 27.7%였으며, 부인의 연령은 20대가 9.7%, 30대가 30.6%, 40대가 48.0%, 50대 이상이 11.7%였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가 8.2%, 전문대학 이하가 23.8%, 대학교 이상이 68.0%로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았고, 부인의 경우 중학교 이하가 18.9%, 전문대학 이하가 45.2%, 대학교 이상이 35.9%이었다. 남편의 취업동기는 생활곤란이 24.8%, 취미·전공을 위해서가 18.4%, 경제적 풍요가 36.9% 기타가 19.9%로 나타났으며, 부인의 경우 생활곤란이 12.1%, 취미·전공을 살리기 위해서가 30.1%, 경제적 풍요가 45.2%, 기타 12.6%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은 사무직·기술직 종사자가 24.3%, 자영업자가 34.9%, 피고용기능공이 4.9%, 전문직·관리직이 29.6%, 단순노무직이 4.9%, 대기업주가 1.4%로 나타났다. 부인의 취업유무는 취업주부가 31.6%, 비취업 주부가 68.4%로 전체 주부의 1/3정도가 취업주부 이었다. 자녀수는 1~2명이 57.8%로 가장 많으며, 3~4명이 39.3%, 5명 이상이 2.9%였다. 가족생활주기는 학령전아동기가 18.9%, 초등교육기가 13.1%, 중등교육기가 37.4%, 대학교육기가 19.7%, 자녀독립기가 10.9%였다. 소득은 50만원 이하가 18.0%, 51~90만원이 29.0%, 91~130만원이 24.5%, 131만원 이상이 28.5%로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았다.

IV. 결과 및 해석

1. 기초자료분석

1) 부부의 자아실현성 정도

남편과 부인의 자아실현성 정도를 비자아실현형,

정상형, 자아실현형의 세가지²⁾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남편의 경우 자아실현형이 42.7%이고 정상형이 41.7%로 대부분의 남편들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부인의 경우는 자아실현형이 30.6%이고 정상형이 39.8%로 많은 수의 주부들이 자아실현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남편에 비하여 자아실현의 정도가 낮았다.

한편 남편과 부인의 자아실현성의 일치정도를 살펴본 결과 남편의 자아실현성이 부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43, p<.001$).

2) 남편과 부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일반적 경향

일상의 가정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남편과 부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일반적 경향은 다음과 같다.

의생활에 대한 의사결정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문항별로 보면 외출시 의복선택, 남편의 외출복 구입, 부인의 외출복 구입, 가족의 의복구입순으로 부부의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임희규(1979)의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식생활 영역에 대한 의사결정에서도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의사결정에 의해 가정내 식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항별로 보면 외식장소와 종류선택, 손님초대시 음식결정, 별식·간식의 종류, 평상시의 식단결정 순으로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감소하는데 이는 임희규(1979), 최영애(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주생활 영역에 대한 의사결정은 부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보면 주거지역 선택, 주택형태, 집수리 시기, 실내장식 순으로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감소한다.

경제생활 영역에서 주요재산매매, 축의금·조의금 결정등에 관해서는 부부가 공동의 의사결정을 행하나 생활비 예산, 저축방법은 부부중 어느 일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보면 주요재산매매, 축의금·조의금 결정, 저축방법, 생활비 예산 순으로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감소하는데 이는 임희규(1979), 최영애(1982), 윤현봉(1986)의 결과와 일치한다.

주 2) 자아실현형 분류기준은 남녀 전체 평균 13.20을 기준으로 정상분포를 이룬다고 생각하고 이를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자녀문제에 대해서는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항별로 보면 상급학교 진학, 자녀수 결정, 특기지도, 자녀용돈 순으로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감소한다.

여가생활 영역에서도 부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보면 휴가시기와 장소, 취미생활, 공휴일 계획, TV프로 선택 순으로 공동의사결정 정도는 감소하였다.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면 부부가 공동의 의사결정으로 가족관계에 관한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별로 보면 시부모와의 동거 결정, 시부모·친정부모 방문, 부인의 취업, 부인의 사회활동 순으로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감소하는데, 이는 부인의 취업, 부인의 가외활동 순으로 공동 의사결정 정도가 감소한다는 임희규(1979)의 연구와 일치하며 이형실(1985)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각 영역간의 평균 점수는 자녀문제, 주생활, 가족관계, 여가생활, 경제생활, 의생활, 식생활 순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를 통해 가정에서 부부가 중요시 하는 일은 자녀문제, 주생활, 가족관계이며, 의생활과 식생활은 일상의 일로서 그 중요성의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의사결정의 하위영역별로 남편과 부인의 응답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편과 부인의 응답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Scanzoni(1965, 15)의 연구와 일치하며 Safilios-Rothschild(1969), Van Es와 Shing(1972), Jaco와 Shepard(1975), Cromwell과 Cromwell(1978), McDonald(1980)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본 연구에서 남편과 부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응답이 일치하는 이유는 조사대상이 한 자녀 이상을 둔 부부로 일정기간 이상 함께 부부생활을 한 사람이므로 유사한 사고유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연구문제의 분석

1) 상황변수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자아실현성

연구문제 I 을 규명하기 위해 상황변수(연령, 자녀수, 가족생활주기, 교육수준, 소득, 남편의 직업, 부인의 취업유무, 취업동기)와 남편과 부인의 자아실현성 정

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결과 연령은 남편의 자아실현성에만 영향을 미치며 부인의 자아실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남편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자아실현성 정도가 높아, 20대일 경우 자아실현성이 가장 높으며 30·40대로 갈수록 점점 감소하다가 50대 이상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수는 남편과 부인의 자아실현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족생활주기는 남편과 부인의 자아실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남편과 부인 모두 학령전아동기와 자녀독립기 일때 자아실현성이 가장 높으며 중고등교육기 일때 가장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자아실현성 역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남편과 부인 모두 대학교 이상에서 자아실현성이 가장 높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실현성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숙(1979), 강기연(1989)의 연구와 일치하나 교육정도에 따라 주부의 자아실현성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는 이정숙(1984)의 결과와는 불일치 한다. 소득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자아실현성을 분석한 결과 남편의 경우 소득은 자아실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었으며 부인의 경우 소득은 자아실현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높은 소득 집단이 낮은 소득 집단에 비해 자아실현성이 높았는데 이는 사회경제적지위와 자아실현성간의 관계를 연구한 이미숙(1979), 이정숙(1984), Dale(1968)의 결과와 일치하며 강기연(1989)의 연구와는 불일치 한다. 남편의 직업은 남편과 부인의 자아실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남편과 부인 모두 대기업주, 전문직·관리직일수록 자아실현성 정도가 높았다. 이는 대기업주나 전문직·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육수준이 높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의 높은 이상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므로 자아실현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부인의 취업유무와 자아실현성과의 관계를 보면, 남편과 부인 모두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라 자아실현성은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숙(1979), 이정숙(1984), 강기연(1989)의 결과와 일치하며, 직업을 가진 부인이 직업을 갖지 않은 주부에 비해 자아실현성이 높다는 조숙(1984)의 연구결과와

표 1. 상황변수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자아실현성

상황변수	집 단	남 편			부 인		
		평 균	N	F	평 균	N	F
연 령	20대	15.50	4	4.538**	12.95	20	2.26(n.s.)
	30대	14.15	47		12.79	63	
	40대	13.20	98		12.48	99	
	50대이상	14.04	57		13.96	74	
자녀수	1~2명	13.86	119	2.70(n.s.)	13.15	119	2.83(n.s.)
	3~4명	13.20	81		12.31	81	
	5명이상	14.17	6		12.33	6	
가 족 생 활 활 주 기	학령전아동기	14.44	39	5.25**	13.67	39	6.19***
	초등교육기	13.56	27		12.37	27	
	중고등교육기	12.87	77		11.86	77	
	대학교육기	13.50	40		13.46	41	
	자녀독립기	14.91	23		13.82	22	
교 육 수 준	중학교이하	12.65	17	4.90**	11.69	39	8.91***
	전문대학이하	12.96	49		12.58	93	
	대학교이상	13.95	140		13.65	74	
소 득	50만원이하	13.32	37	1.20(n.s.)	11.22	37	6.95***
	51~90만원	13.25	60		12.82	60	
	91~130만원	13.94	50		13.36	50	
	131만원이상	13.86	59		13.29	59	
남 편 의 직 업	기술직·사무직	13.33	50	4.55***	13.24	50	6.40***
	자영상공업	10.60	61		12.25	61	
	피고용기능공	13.30	10		10.30	10	
	전문직·관리직	13.86	72		13.39	72	
	단순노무직	14.08	3		8.33	3	
	대기업주	13.90	10		13.50	10	
부인의 취업유무	유	13.45	65	t=0.67	13.20	65	t=1.65
	무	13.68	141	(n.s.)	12.61	141	(n.s.)
취 업 동 기	생활이곤란	12.71	51	3.62*	11.52	25	6.03***
	전공·취미	13.87	38		13.77	62	
	경제적풍요	14.04	76		12.52	93	
	기타	13.68	41		12.69	26	

*P<.05 **P<.01 ***P<.001

상반된다. 취업동기가 자아실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편과 부인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남편과 부인 모두 전공·취미를 살리기 위해 취업한 경우 자아실현성이 높았으며 생활이 곤란하여 취업한 경우 자아실현성이 가장 낮았다. 이는 생활에 여유를 갖고자 하거나 전공·취미를 살리기 위해 취업한 경우는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공적인 삶이 되도록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아실현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2) 상황변수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의사결정

연구문제II를 규명하기 위하여 상황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남편과 부인의 의사결정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표 2, 표 3 같다.

(1) 의생활

남편의 경우 의생활 영역에서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자녀수, 가족생활주기로 남편의 연령이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 보다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재석(1971), 김윤경(1983), Centers(1971)의 결과와 일치한다. 가족생활 주기에 따른 남편의 공동의사결정 정도를 보면 학령전아동기일때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가장 높으며 대학교육기일때 가장 낮았다. 한편 부인의 경우에는 가족생활주기만이 영향 변수로, 학령전교육기일때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가장 높으며 대학교육기까지 점차 감소하다가 자녀독립기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최영애(1982), 이형실(1985)의 결과와 일치한다.

(2) 식생활

식생활 영역에서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편의 경우 자녀수, 부인의 경우 연령만이 영향 변수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경우 자녀수가 많거나 적은 경우가 3~4명인 경우에 비해 공동의사결정이 높았으며, 부인의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Blood(1962), 최재석(1971), 한남제(1971)의 결과와 일치한다.

(3) 주생활

주생활 영역에서 남편과 부인의 공동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를 보면 남편의 경우 가족생활주기가 영향 변수로 학령전아동기, 자녀독립기일 경우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높으며 초등교육기일 경우 가장 낮은데, 이는 가족생활주기가 낮을수록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높다는 최영애(1982), 이형실(1985)의 연구와 일치한다. 부인의 경우 교육수준과 취업유무가 공동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높는데, 이는 Wilkening(1963), 이한기(1977), 임희규(1979), 최영애(1982), 김윤경(1983), 이형실(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른 공동의사결정 정도를 보면 부인이 직업을 가진 경우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인이 경제적 도움을 주게 되므로 가정내에서 차지하는 권력이 증가하고, 사회생활을 통한 정보획득으로 의사결정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자연히 공동의사결정 정도는 증가한다고 생각한다.

(4) 경제생활

경제생활 영역에서 남편과 부인의 공동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편과 부인 모두 연령, 자녀수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20대일 경우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가장 높고, 자녀수가 1~2명일 경우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김윤경(1983), 김혜숙(1983), 강기연(198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연령이 낮은 사람들은 생활경험이 부족하지만 남녀평등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므로 주요재산 매매, 생활비 예산과 같은 경제생활에서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을 지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자녀문제

자녀수 결정이나 교육문제에 관한 자녀문제 영역에서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편의 경우 연령과 가족생활주기로 연령이 20대일 경우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가장 높으며, 가족생활주기가 낮을수록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높는데 이는 Albracht, Bahr와 Chadwick(1979), 이형실(1985)의 연구와 일치한다. 한편 부인의 경우 가족생활주기만이 공동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학령전아동기일때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가장 높으며, 가족생활주기가 진점됨에 따라 공동의사결정은 감소하다 자녀독립기에

표 2. 상황변수에 따른 남편의 의사결정

변수	집단	N	의사결정의 전체점수	의사결정의 하위영역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경제생활	자녀문제	여가생활	가족관계
연령	20대	4	74.00	9.00	8.75	11.00	11.50	12.00	11.50	10.25
	30대	47	68.19	9.09	8.19	10.43	9.51	10.68	10.13	10.19
	40대	98	64.60	7.99	7.89	9.98	9.07	10.05	9.78	9.85
	50대이상	57	67.32	8.28	8.00	10.14	9.63	10.54	10.25	10.47
	F		3.63*	4.98**	0.59	0.91	3.46*	4.20**	2.14	1.49
자녀수	1~2명	119	67.37	8.61	8.17	10.24	9.66	10.51	10.06	10.12
	3~4명	81	64.63	7.91	7.68	9.95	8.95	10.16	9.93	10.06
	5명이상	6	69.67	8.67	9.17	11.00	9.33	10.33	10.67	10.50
	F		3.07*	4.42	3.46	1.25	3.99	1.34	0.61	0.17
가족생활주기	학령전아동기	39	70.51	9.26	8.41	10.77	9.87	11.21	10.62	10.38
	초등교육기	27	62.37	8.19	7.70	9.44	8.93	9.41	9.26	9.44
	중고등교육기	77	64.87	8.10	7.71	9.97	9.19	10.19	9.83	9.87
	대학교육기	40	66.24	7.80	8.18	9.85	9.27	10.50	9.95	10.50
	자녀독립기	23	69.32	8.70	8.35	10.83	9.83	10.43	10.70	10.52
	F		5.56***	4.96***	1.66	3.31*	1.82	6.91***	4.08**	2.26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17	66.82	8.35	7.88	9.76	10.06	10.35	10.06	10.35
	전문대학이하	49	64.84	8.08	8.06	9.82	9.45	10.12	9.63	9.67
	대학교이상	140	66.84	8.43	8.00	10.31	9.26	10.46	10.16	10.22
	F		1.05	0.77	0.07	1.70	1.58	0.91	1.81	1.70
소득	50만원이하	37	65.84	8.11	7.97	9.95	9.73	10.49	10.11	10.27
	51~90만원	60	66.13	8.37	7.90	10.07	9.28	10.25	10.07	10.25
	91~130만원	50	65.94	8.38	8.04	10.28	9.36	10.26	9.96	10.28
	131만원이상	59	67.31	8.42	8.10	10.24	9.25	10.51	9.98	10.37
	F		0.35	0.29	0.15	0.32	0.63	0.46	0.08	0.08
남편의직업	사무직·기술직	50	67.30	8.58	8.06	10.32	9.60	10.48	10.02	10.24
	자영상공업	61	66.21	8.28	7.90	10.02	9.72	10.39	10.05	9.89
	피고용기능공	10	66.90	7.90	7.60	10.30	9.30	10.60	10.50	10.60
	전문직·관리직	72	65.74	8.36	8.04	10.08	8.96	10.24	9.97	10.07
	단순노무직	3	63.67	8.00	8.00	10.67	8.00	9.33	9.33	9.33
	대기업주	10	67.40	7.90	8.50	10.20	9.30	10.70	10.00	10.80
	F		0.30	0.51	0.33	0.23	1.46	0.60	0.28	0.78
부인의취업유무	유	65	66.51	8.52	8.01	10.17	9.54	10.43	10.20	10.37
	무	141	66.29	8.26	8.00	10.13	2.30	10.34	9.94	9.99
	t		0.17	1.07	0.06	0.12	0.87	0.39	1.01	1.48
취업동기	생활이곤란	51	65.27	8.12	7.47	9.94	9.53	10.16	9.96	10.04
	전공·취미	38	68.03	8.84	8.05	10.50	9.29	10.50	10.29	10.55
	경제적풍요성	76	66.05	8.20	8.18	10.11	9.32	10.34	9.96	9.96
	기타	41	66.78	8.41	8.29	10.12	9.37	10.56	9.98	10.05
	F		0.84	1.64	2.37	0.69	0.18	0.67	0.39	0.96

*P<.05 **P<.01 ***P<.001

표 3. 상황변수에 따른 부인의 의사결정

변 수	집 단	N	의사결정의 전체점수	의사결정의 하위영역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경제생활	자녀문제	여가생활	가족관계
연령	20대	20	71.62	9.15	8.95	10.85	10.40	10.90	10.85	10.80
	30대	63	67.40	8.46	8.27	10.56	9.98	10.37	10.41	9.90
	40대	99	65.65	8.06	7.79	10.00	9.24	10.18	10.00	10.35
	50대이상	74	69.04	8.38	7.88	10.50	10.17	10.79	10.75	10.67
	F			4.44*	2.33	2.92*	2.46	4.97**	2.41	3.37*
자녀수	1~2명	119	68.25	8.56	8.25	10.54	10.03	10.54	10.42	10.26
	3~4명	81	65.57	8.04	7.81	9.98	9.20	10.12	10.05	10.31
	5명이상	6	67.50	7.50	7.50	10.33	9.67	10.67	11.17	10.83
	F			3.07*	2.81	1.79	2.80	5.97*	2.36	2.72
가족생활주기	학령전아동기	39	71.08	9.18	8.59	10.87	10.08	10.95	10.95	10.51
	초등교육기	27	66.08	8.33	7.89	10.26	9.89	9.96	10.11	9.52
	중고등교육기	77	65.54	8.06	7.97	10.17	9.42	10.14	10.04	10.27
	대학교육기	41	65.66	7.95	7.66	9.98	9.41	10.27	10.02	10.27
	자녀독립기	22	70.14	8.41	8.35	10.50	10.23	10.91	10.77	11.00
	F			5.22***	3.25*	1.69	1.77	1.95	3.97**	3.83**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39	66.64	8.10	8.13	10.05	9.54	10.21	10.05	10.36
	전문대학이하	93	66.91	8.32	8.22	10.12	9.88	10.30	10.17	10.29
	대학교이상	74	67.79	8.45	7.82	10.69	9.53	10.57	10.58	10.27
	F			0.39	0.47	1.04	3.07*	1.08	1.16	2.35
소득	50만원이하	37	66.64	8.14	8.11	9.92	9.70	10.43	10.27	9.97
	51~90만원	60	67.36	8.30	7.93	10.37	9.67	10.22	10.25	10.55
	91~130만원	50	66.44	8.54	8.24	10.22	9.62	10.30	10.28	10.10
	131만원이상	59	67.93	8.29	8.00	10.58	9.81	10.58	10.37	10.41
	F			0.42	0.39	0.30	1.26	0.17	0.76	0.08
남편의 직업	사무직·기술직	50	68.72	8.36	7.94	10.62	10.18	10.74	10.38	10.50
	자영상공업	61	66.59	8.23	8.02	10.05	9.54	10.26	10.08	10.41
	피고용기능공	10	68.00	7.90	8.40	10.40	10.40	10.50	10.00	10.40
	전문직·관리직	72	66.94	8.51	8.08	10.29	9.46	10.24	10.36	10.00
	단순노무직	3	68.33	9.00	9.33	10.00	9.00	10.33	10.07	10.00
	대기업주	10	67.20	7.60	8.00	10.50	9.30	10.20	0.90	10.70
F			0.69	0.73	0.44	0.70	1.77	0.99	0.79	0.86
부인의 취업유무	유	65	68.18	8.26	8.31	10.74	9.98	10.57	10.38	10.58
	무	141	66.69	8.35	7.94	10.11	9.55	10.29	10.26	10.16
	t			1.35	0.36	1.48	2.85**	1.63	1.49	0.58
취업동기	생활이곤란	25	65.85	7.84	8.00	9.74	9.40	10.28	10.08	10.44
	전공·취미	62	68.43	8.66	8.21	10.56	9.73	10.56	10.65	10.10
	경제적풍요성	93	67.14	8.18	8.15	10.35	9.92	10.29	10.16	10.42
	기타	26	65.73	8.50	7.42	10.08	9.04	10.35	10.15	10.19
	F			1.13	1.65	1.37	1.60	2.15	0.55	1.75

*P<.05 **P<.01 ***P<.001

가서 다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6) 여가생활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면서 사람들은 여가생활을 중요시 하게 되었다. 여가생활 영역에서 공동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편의 경우 가족생활주기로 학령전교육기와 자녀독립기의 경우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높으며 초등교육기일때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부인의 경우 연령과 가족생활주기가 영향 변수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높으며, 가족생활주기별로 보면 학령전교육기와 자녀독립기에서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높고 대학교육기에서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이유는 정년퇴직이후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오른 남편이 점차 가정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려 하고 남은 여생을 부부가 함께 즐기려는 의도에서 남편과 부인의 공동의사결정이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7) 가족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부인의 사회활동 등을 내용으로 한 가족관계 영역의 공동의사결정 정도를 분석한 결과, 남편의 경우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었으며 부인의 경우 가족생활주기만이 영향 변수로 나타나 학령전교육기, 자녀독립기일 경우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높으며 초등교육기인 경우 가장 낮았다. 이는 결혼년수가 적을수록 부부의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증가 한다는 강기연(198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남편과 부인 모두 연령, 자녀수, 가족생활주기가 공동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1~2명 이거나 5명이상 일수록, 그리고 가족생활주기가 학령전아동기 이거나 자녀독립기일수록 남편과 부인의 공동의사결정 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3) 자아실현성 정도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의사 결정

연구문제III을 규명하기 위하여 자아실현성을 중

표 4. 자아실현성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의사결정

변수	부부의 자아실현성	N	의사결정의 전체점수	의사결정의 하위영역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경제생활	자녀문제	여가생활	가족관계
남	비자아실현형	32	65.78	8.28	7.66	9.97	9.44	9.97	10.16	10.31
	정상형	86	64.53	8.05	7.88	9.80	9.12	10.14	9.69	9.87
	자아실현형	88	68.34	8.65	8.25	10.55	9.60	10.74	10.31	10.26
부	F		4.68*	2.84	1.79	3.83*	1.66	5.04**	3.20*	1.24
	비자아실현형	61	65.45	8.16	7.98	9.84	9.52	10.00	10.08	10.03
	정상형	87	67.54	8.33	8.05	10.48	9.78	10.51	10.20	10.46
인	자아실현형	63	68.41	8.48	8.14	10.56	9.73	10.57	10.63	10.33
	F		2.56	0.47	0.13	3.66*	0.42	3.41*	2.61	1.29

*P<.05 **P<.01

주 3) 자아실현성은 평균 13.20을 기준으로 비자아실현형(~11점), 정상형(12~14), 자아실현형(15~17)으로 분류하였다.

속변수로 하고 남편과 부인의 공동의사결정을 독립변수로 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아실현성에 따른 공동의사결정 정도는 남편의 경우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하위영역별로 보면 주생활, 자녀문제, 여가생활에서 자아실현성에 따라 공동의사결정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즉 자아실현형인 사람일수록 공동의사결정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자아실현 한 사람은 공동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실현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일의 가치를 얻는데 융통성을 보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도 폭 넓은 의견을 수용하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적응력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부인의 경우 의사결정의 하위영역을 하나로 묶어 전체의사결정으로 보았을 때 자아실현성은 공동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위영역별로 보면 주생활과 자녀문제 영역에서 자아실현성이 높을수록 공동의사결정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실현성이 높을수록 부부의 공동참여도가 높다는 Price(1973), 강기연(198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자아실현성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부로서의 역할과 위치에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므로 부부의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사결정의 전 영역에서 자아실현성이 높을수록 부부의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편의 경우는 주생활, 자녀문제, 여가생활에서 그리고 부인의 경우는 주생활, 자녀문제에서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아실현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남편과 부인 모두 공동의사결정을 수행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남편과 부인의 자아실현성과 의사결정과 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가정생활의 만족도 증진과 합리적인 가정경영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과 부인 모두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자아실현성이 부인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둘째, 의생활, 식생활, 저축방법이나 생활비 예산과 같은 의사결정은 부부중 어느 한편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나, 주생활, 주요재산 매매와 조의금·축의금 결정, 자녀문제, 여가생활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의사결정은 부부가 공동으로 행하고 있으며, 남편과 부인의 의사결정은 일치하고 있었다.

셋째, 남편과 부인의 자아실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남편의 경우 연령, 가족생활주기,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 취업동기등으로 나타났으며 부인의 경우 가족생활주기, 교육수준, 소득, 남편의 직업, 취업동기 등으로 나타났다.

네째, 남편과 부인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관련을 보인 상황변수는 남편과 부인 모두 연령, 자녀수, 가족생활주기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그러므로 남편과 부인 모두 연령이 낮고 자녀가 어리거나 성장후 독립한 경우, 그리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므로 가정내 의사결정에서도 공동의사결정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자아실현성에 따라 남편과 부인의 공동의사결정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데에 대한 분석 결과 남편의 경우 자아실현성은 전체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부인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영역별로 보면 주생활, 자녀문제 영역에서 자아실현형 일수록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높았다.

그러므로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남편과 부인의 공동의사결정은 상황변수와 자아실현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고 자녀수가 적으며 가족생활주기가 학령전아동기이거나 자녀독립기 일수록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높으며,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가정내에서 부부의 공동의사결정 정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의 만족도가 증가하며 생활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이한기 1977; 강기연 1989).

따라서 가정생활의 만족도 증진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가정경영을 위해서는 가족성원들의 양적, 질적인 욕구충족을 통하여 자아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성원들의 자아실현은 자기 스스로 자아실현인이 되고자 하는 내적 자극과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부터의 외적 자극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내적, 외적 자극들은 끊임없이 주어지는 교육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므로 평생교육 program을 개발하여 그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도와주며, 가장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합리적인 가정경영을 위해서는 부부 공동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강기연 : 주부의 자아실현성과 부부간 의사결정 유형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1989
- 2) 김경옥 : 자아수용과 자아실현성의 관계 및 이에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1977
- 3) 김윤경 : 가정생활의 의사결정 유형과 관련변인과의 관계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1983
- 4) 김재은 · 이광자 : 자아실현검사 실시요강. 서울 : 중앙여성연구소, 1977
- 5) 문숙재 : 가정관리 행동을 위한 인류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19(4) : pp65-71, 1981
- 6) 문숙재 : 가정관리학의 사회적 기여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9(4) : pp115-121, 1981
- 7) 문숙재 : 미래사회의 가정과 가정관리. 가정대학 55주년 기념교수논문집, pp116-130, 1985
- 8) 서병숙 :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족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10대 자녀를 둔 부부 가족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1976
- 9) 윤숙현 : 가정관리의 체계론적 접근을 위한 시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1986
- 10) 윤현봉 : 부부간의 권력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1986
- 11) 이미숙 : 주부의 자아실현성과 역할 평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1979
- 12) 이정숙 : 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자아실현성간의 관계 : 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1984
- 13) 이한기 : 농촌가족내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1977
- 14) 이형실 : 남편과 주부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1985
- 15) 임정빈 :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 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1988
- 16) 임희규 : 가정생활에서의 주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서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1979
- 17) 조 숙 : 여성 역할태도와 자아실현과의 상관연구 : 30, 40대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1984
- 18) 최영애 : 도시주부의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의사결정의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1982
- 19) Blood RO and DM Wolfe : *Husbands and Wives*, New York : Free Press, 1960
- 20) Burr WR, R Hill, FI Nye, IL Nye and IL Reiss :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The Free Press, pp42-11, 1979
- 21) Campbell FL : *Family Growth and Variation in Family Role Structu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ruary, pp45-53, 1970
- 22) Centers R and BH Raven : *Conjugal Power Structure : A re-exami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6, pp264-278, 1971
- 23) Cromwell VL and Ronald E Cromwell : *Perceived Dominance in Decision-Making and Conflict Resolution Among Anglo, Black and Chicano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ember, pp749-759, 1978
- 24) Deacon RE and FM Firebaugh : *Home Mangement*

- Context and Concepts*, Houghton Mifflin Company, 1975
- 25) Deacon RE and FM Firebaugh : *Family Resource Management*, Allyn and Bacon, Inc, 1975
- 26) Goldman JA and PV Olczak : *Self-Actualization and the Act of Volunteering : Further evidence for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Personal Orientation Inventor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31, No 2, pp287-291 1975
- 27) Gross IH, EW Crandall and MM Knoll :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New York : Appleton Century Crofts, 1980
- 28) Hoeflin R and N Bolsen : *Life Goals and Decision Making : Educated Women's Pattern*, *Journal of Home Economics*, Summer, pp32-35, 1986
- 29) Jeries, Nahell : *Wives Perceptions of Marital Decision Mak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March, Vol 5, No 3, pp146-153, 1977
- 30) Knapp RR : *Relationship of a Measure of Self-Actualization to Neuroticism and Extraversion*,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Vol 29, No 2, pp168-172, 1965
- 31) McDonald GW : *Family Power : the assessment of a decade of theory and research, 1970-1979*,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ember, pp111-124, 1980
- 32) Nickell P and JM Dorsey : *Management in Family Living*, 4th ed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Inc, 1967
- 33) Oppenheim I : *Management of the Modern Home*, 2nd ed New York : Macmill Publishing Co, Inc, 1976
- 34) Paolucci B, OA Hall and NW Axinn : *Family Decision Making : An Ecosystem Approach*,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Co, 1977
- 35) Price DZ : *Relationship of Decision Styles and Self-Actualiza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September, Vol 2, No 1, pp12-20, 1973
- 36) Rizzo, Rosemary and Edgar Vinacke : *Self-Actualization and the Meaning of Critical Experience*, *J Humanistic Psychology*, Vol 15, No 3, pp19-30, 1975
- 37) Safilios-Rothschild C : *The Study of Family Power Structure : A Review 1960-1969*,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ember, pp539-552, 1970
- 38) Szinovace ME : *Role Allocation, Family Structure and Female Empoly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ember, pp781-791, 1977